

19년도 방예창 시놉시스(진촌리 고인물)

제 목	유다
장르/형식	드라마 / 20분 단편영화
주 제	빈곤층의 무력감을 기성세대가 탓할 수 있을까
작 의	초점화자인 현수에게 감정이입, 비행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일반적인 편견을 뒤집고, 마지막 지점에서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영화.
등장인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현수(男, 28세) 한국대학교 법학과 4학년, 복수전공인 수학 교생실습을 나왔다. - 김지훈(男, 18세) 담배를 피며, 학교를 빼먹고 이성교제를 하는 문제아. - 주임(男, 57세) 학생주임, 유머러스한 편이나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엄하다.
줄거리	<p>어느 날 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수는 10년 전 과거를 떠올린다.</p> <p>교생실습을 하러 간 현수. 지훈을 만나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한다.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는 지훈의 실력, 하지만 지훈과의 관계는 예상치 못한 일로 틀어지기 시작한다.</p> <p>그리고 10년 후,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.</p>